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보존되었나.

글 | 박대길(정읍시 동학농민혁명성안팀장)

체계화된 문자를 발명하기 전부터 인류는 의사소통의 하나로 기호를 사용했는데, 암각화 등에 새겨진 기호가 이를 말해 준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자를 발명하게 된 인류는 이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삶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기록물은 셀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이었을 터이나, 현존하는 기록물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양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기록물을 생성한 뒤 보존과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 큰 원인은 전쟁과 화재 등 인위적인 재난과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이었다. 현존하는 기록물은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이겨낸 인류의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이다.

현존하는 인류의 기록문화유산 중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우리나라 기록물은 모두 9가지이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직지심체요절, 일성록, 조선왕조 의궤, 승정원일기,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5·18민주화운동기록물 등이다.

직지심체요절,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과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시대에 생성된 것들이며,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고려시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생산이 지속된 기록물이다. 이로 보아 현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가지 중 7가지가 조선시대에 생성되고, 보존 관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생성된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데에는 그만큼 환경을 만들어 낸 선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문자가 사용된 이래, 수많은 기록물이 생산되었을 터이지만, 유독 조선시대 기록물이 다수를 점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기라는 점이 감안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01 태백산사고 : 담장 안 왼쪽 건물이 실록각이고, 그 오른쪽은 선원보각이다. 담장 밖 큰 건물은 근천관이고 그 왼쪽 작은 건물(대문 뒤쪽 건물)은 포쇄각으로 추정된다.

사고(史庫)의 유래와 사적분장지책(史籍分藏之策)

고려시대부터 실록을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된 사고(史庫)에 관한 사전적 해석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역대의 실록을 보관하던 창고(倉庫)로 사각(史閣)이라고도 한다.’이다. 한마디로 사고는 실록을 보관하는 서고(書庫)라는 것이다. 여기에 “사고는 사각 또는 실록각이라고도 하는데, 열성조(列聖朝)의 실록을 보관한 서고를 말한다. 아무리 많은 서적이 수장(收藏)되었더라도 실록의 수장이 아니면 사고라 칭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사고라 칭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고는 공간적으로 사각 또는 실록각을 가리키며, 그 안에 반드시 실록이 보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고는 ‘금궤석실(金櫃石室)’ 또는 ‘지고(地庫)’나 ‘비고(秘庫)’라고도 하였으며, 공간과 시설물 개념으로 실록을 비롯하여 각종 사책(史冊)을 보관하는 실록각을 가리켰으나, 조선 후기에는 선원록(璿源錄)을 보존하기 위한 선원각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하였다. 즉 조선 후기에는 실록 뿐 아니라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의궤류(儀軌類)와 경서(經書), 나아가 개인의 문집과 보첩(譜牒) 등도 보관하였다.

실록, 선원록 등과 같은 국가 중요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사각과 선원각이 따로 건립되었고, 이를 수호하고 관리할 수호인(守護人)의 배치와 이들을 위한 부속 건물이 건립되었다.

또한 ‘사고수직절목(史庫守直節目)’을 제정하여 사고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록을 비롯한 서적의 보존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관을 파견하여 포쇄(曝曬)하였다. 그리고 사관(史官)이 아니면 사고를 열고 닫지 못하도록 엄하게 단속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의 수개(修改)도 지방관이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이처럼 사고는 단순히 사각을 짓고 그 안에 실록을 비롯한 사서를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보존관리 체계에 따라 운영되었다. 따라서 사고제도는 공간적으로 사각은 물론 선원각 등의 부대시설을 비롯하여 실록의 봉안(奉安)과 포쇄 그리고 수개(修改)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절목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고는 실록을 보관한 사각[實錄閣]과 선원록을 보관한 선원각 및 부대시설, 수도에 설치된 내사고(內史庫, 京史庫)와 지방에 설치된 외사고(外史庫) 등의 시설물, 실록의 보존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시행된 절목·포쇄·수개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사고의 의미는 사각에 한정하지 않고, 선원각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 전기에는 선원각을 함께 두지 않고 사각만 설치 운영한 관계로, 사각을 사고와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내사고인 춘추관사고를 제외한 지방

의 사고에 각기 수호 사찰(寺刹)을 두어 운영했으며, 선원각을 세워 선원록을 보관하였고, 사고 수호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과 인력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초기에 『유기』 100권을 편찬하고 영양왕 11년에는 태학박사 이문진이 이를 요약하여 5권의 『신집』으로 만든 것을 비롯하여 백제에서는 고흥이 『서기』를, 신라에서는 거질부가 『국사』를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삼국시대에 각 나라마다 역사를 수찬(修撰)하여 보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찬된 사서가 서고 또는 사고에 보관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그나마 사서(史書)마저 전하지 않는다.

사고에 대한 기록은 고려 때부터 확인된다. 고려는 초기부터 실록을 비롯한 여러 사서와 전적을 편찬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개경의 사관에 사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시기는 광종 대였다. 그러나 외침과 내란 등으로 실록이 소실(燒失)되거나 이안(移安)되었다가 다시 개경으로 옮겨지는 등 이동이 심하였다.

고려는 내우외환으로 인해 궁내(宮內)에 있던 사관(史館)이 소실되어 실록의 보존마저 어렵게 되자 좀 더 안전하게 실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사고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고종 14년(1227) 9월, 『명종실록』 2질을 편찬하여 1질은 궁내(宮內) 사관(史館)에 보관하고, 다른 1질은 합천 해인사에 보관하였다. 이것이 기록상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외사고의 시작이다. 고려는 외침과 국난으로 인한 실록의 멸실(滅失)을 우려해서 부분(副本)을 만들었고, 경사고와 함께 외사고를 두어 실록의 보존에 만전을 기한 것이다.

조선은 고려의 사고제도를 계승하였는데, 세종 21년(1439) 6월 사헌부에서 ‘사적분장지책’을 건의함에 따라 고려보다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그 명분 중의 하나가 사마천이 『사기』를 짓고 난 뒤, “(정본은) 명산(名山)에 간직하고 부분은 서울에 둔다.”는 것이었다.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사적(史籍)을 분장(分藏)한 것이다. 이로써 조선 전기부터 사고 운영이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사고인 춘추관사고와 충주사고 외에 지방의 중심지인 전주와 성주에 추가로 외사고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수령과 관원(수호관 5명, 별색호장別色戶長·기관記官·고지기庫直 각 1명)에게 수호와 관리를 맡겼으며, 정기적으로 사관을 파견하여 포쇄하는 등 운영체계를 갖춘 것이다. 그 결과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성주사고에서의 화재로 인한 실록의 소실을 제외하고 잘 보존되었다. 반면 사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 전기 사고 운영에 대해서 일부나마 살펴 볼 수 있는 사료는 성주사고 화재사건과 『미암일기(眉巖日記)』이다. 성주사고 화재는 그 당시 사고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여러 측면을 보여준다. 숙직자의 궐원(闕員)은 물론 관노(官奴)가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사각에 올라가는 등 기강의 문란, 사건 초기에는 숙직자들의 진술만을 믿고 실화(失火)로 단정하였으며, ‘사고의 화재는 국가의 변란과 같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관노의 실화로 판명된 결과 등이다. 그렇지만 이 외에는 별다른 사고(事故)없이 실록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화재 이후에는 춘추관사고본 실록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복구함으로써 사적분장(史籍分藏)의 효과를 거두었다.

『미암일기』는 조선 전기의 봉안사행에 따른 지역의 움직임과 사고의 운영관리 등 여러 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봉안사행을 결정하면서 민폐(民弊)를 우려하고, 봉안사행이 결정된 뒤에도 따로 관찰사에게 서장(書狀)을 보내 봉안사 접대를 지나치게 하지 말도록 당부한 부분은 그만큼 실록의 보존에 따른 부담과 관심이 컸음을 알게 한다. 전주에 도착한 실록은 사각에 봉안되기 전까지 객사에 보관되었고, 관찰사는 춘추관직을 겸하지 않은 관계로 사고의 개폐와 실록의 봉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봉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에서도 실록을 지킨 사람들!

조선 초기부터 실록 편찬과 사고 설치를 통한 보존에 만전을 기해 온 사고관리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임진왜란이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성주가 왜군에 함락되고 이어서

충주마저 함락당하면서 성주와 충주사고에 보관 중이던 실록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선조가 몽진(蒙塵)을 떠나자마자 춘추관이 불에 타면서 춘추관사고의 실록마저 소실되었다. 전주 사고 실록이 유일본(唯一本)이 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전국이 전쟁터로 변하였지만 1592년 5월 말경, 전라도 지역은 왜군으로부터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왜군의 전라도 침략이 머지않았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전세의 급박함을 감지한 전라도관찰사 이광(李光)은 관원(官員)들과 함께 왜군의 침략에 대처하는 방안과 전주사고에 보관 중인 실록, 경기전에 봉안되어 있는 태조 어진(御眞)의 보존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먼저 사각의 마루 밑을 파고 실록을 묻으려 하였으나 경상도 김산현(金山縣)에서 토벌한 왜적의 행장에서 실록 2장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방법을 바꾸어 도내에 있는 깊은 산중의 절험(絶險)한 곳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02 전주사고 실록 내장산 이안도



이에 따라 경기전 참봉(參奉) 오희길(吳希吉)과 무사(武士) 김홍무(金弘武), 수복(守僕) 한춘(韓春) 등이 서둘러 실록의 이안처를 찾게 되는데, 내장산 은적암(隱寂庵)을 적소로 정하였다. 전란과 같은 위급한 때 배로 피할 수 있는 부안 변산(邊山)과 깊은 산중인 정읍 내장산을 두고 최종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도사(都事) 최철견(崔鐵堅)과 삼례찰방(三禮察訪) 윤길(尹黈) 그리고 경기전의 또 다른 참봉 유인(柳訥) 등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내장산을 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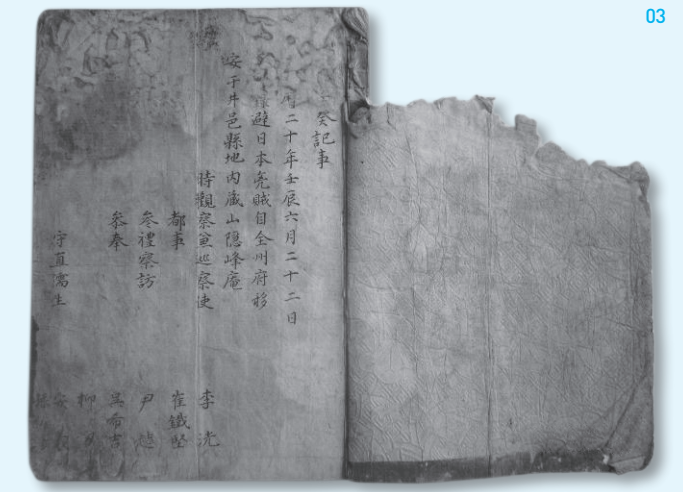
내장산 은적암은 사다리로 길을 이었다 끊었다 이었다 할 정도로 험준한 형세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은적암 앞에 있는 용굴암(龍窟庵) 역시 위는 바라볼 수 없고 오직 높고 높은 하늘이 보일 뿐이라고 하여 피신처의 적지로 간주되었다. 예전에 내장산은 숲이 칩칙해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다.

그해 6월 왜군은 충청도와 경계지점인 금산을 점령하고, 뒤이어 무주와 진안을 점령하며 전라도의 수부(首府)인 전주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처럼 정황이 급박해지자 전라감사 이광은 학행과 지략을 겸비한 유사(儒士) 2명을 선발하였는데, 태인현(泰仁縣)의 선비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錄)이 자원하였다. 그 당시 안의는 64세, 손홍록은 56세였으며, 이들은 몸을 돌보지 않고 사재(私財)를 털어 실록과 어진을 보존하는데 사력을 다하였다.

안의와 손홍록은 당대 호남의 대학자였던 일재(一齋) 이항(李恒)에게서 동문수학한 관계였다. 안의의 자는 의숙(直叔), 호는 물재(勿齋), 본관은 탐진이다. 병조판서를 지낸 사종의 후예이며, 대제학 지현의 손자였다. 손홍록의 자는 경안(景安), 호는 한계(寒溪)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부제학을 지낸 비장의 증손자이자 한림 벼슬을 지낸 숙노의 아들이다.

그리하여 경기전 참봉 오희길과 유인 등의 관인, 안의와 손홍록 등 지역의 선비, 김홍무와 한춘 등의 무인과 수복, 그리고 영은사(靈隱寺, 현 내장사) 의승장(義僧將) 희묵(熙默)을 비롯한 승려와 근방에서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든 용감한 백성 100여 명이 실록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기고 지켰다. 이처럼 전주사고 실록은 지방관과 지역의 선비, 그리고 의승과 지역민이 힘을 모아 지키게 되었다.

내장산에 이안된 실록과 어진은 용굴암과 은적암 그리고 비래암(飛來庵)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지켜졌다. 수직의 책임자



03 임계기사(수직상체일기)

는 경기전 참봉 오희길이었으나 안의와 손홍록은 하루도 떠나지 않고 교대로 실록과 어진을 지켰다.

이러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난중일기(亂中日記)』, 즉 「임계기사(壬癸記事)」와 「수직상체일기(守直相遞日記)」이다. 표지는 『난중일기』이고, 안에는 임계기사와 수직상체일기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 상황이 일자별로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표지의 『난중일기』는 후손이 기입한 것이라고 한다. 이 기록물의 저자는 손홍록이라는 설과 안의라는 설이 있으며 그 당시 실록과 어진을 수직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이에 따르면, 실록은 1592년 6월 22일부터 내장산을 떠나 아산으로 이안되던 1593년 7월 9일까지 1년 18일간 내장산에 보관되었으며, 이때 안의와 손홍록은 번갈아 가며 수직하였다. 두 사람은 같이 수직하기도 하고, 교대로 집과 수직처를 오가며 실록과 어진을 지켰다. 예컨대 6월 23일에는 손홍록과 안의가 함께 수직하였고, 24일에는 손홍록이 집에 가고 안의가 7월 4일까지 10일간 혼자 지켰으며, 7월 5일에는 손홍록이 돌아오고 안의가 집으로 내려가 11일까지 손홍록이 7일간 혼자 수직하였다. 그리고 12일부터 19일까지는 함께 수직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록을 지켰다.

수직한 결과를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수직한 날은 53일이고 안의가 혼자 수직한 날은 174일, 손홍록은 143일이다. 따라서

안의는 모두 227일, 손홍록은 196일 수직하였다. 이들은 전란의 급박함에서도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는 실록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것이다. 여기에 무사 김홍무, 의승장 희묵을 비롯한 승려, 인근의 용감한 백성 100여 명이 끝까지 지켰다.

안의와 손홍록의 수직은 내장산에서 끝나지 않았다. 내장산을 떠난 이후에도 이들의 수직은 계속되었다. 선조 26년(1593) 진주성 함락 이후인 그 해 7월, 실록과 어진은 정읍에서 충청도 아산으로 옮기게 된다. 이때에도 안의와 손홍록은 식량과 말을 마련하고 함께 하였다. 이에 호서검찰사(湖西檢察使) 이산보(李山甫)가 두 사람의 공을 상신하였고, 선조는 이들에게 종6품 별제(別提)를 하사하였으나 이들은 정중히 거절하였다. 백성된 도리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실록은 해주와 강화를 거쳐 평안도 안변의 묘향산 보현사에 이안되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관되었다. 그 사이 안의는 병이 생겨 귀환 후 사망하였고, 손홍록과 김홍무, 수복 한춘, 강수(姜守)·박야금(朴也金)·김순복(金順卜) 등은 전주에서 묘향산까지 5~6년간 배행하였다.

묘향산에 보관된 실록은 전쟁 후 영변부의 객사에 옮겨졌으며, 선조 36년(1603) 강화도로 이안되었다. 전주사고 실록은 임진왜란 발발 이후 전주에서 내장산으로 옮겨진 후 묘향산을 거쳐 강화도에 봉안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무려 2천여 리를 옮겨 다녔다.

전주사고 실록의 보존은 다른 3곳에 보관하던 실록의 멸실과 비교해 볼 때, 왜군의 북상로에서 벗어나 있어 공간적인 여유와 함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실록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민과 관원의 역할 분담 등 적절한 대응책이다. 즉 전주사고 실록의 보존은 어느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실록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라감사 이광을 비롯한 관원과 손홍록과 안의와 같은 지역의 선비, 그리고 의승장 희묵 등 지역민의 노고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사고의 위치와 운영에 관한 인식의 변화

전란으로 유일본이 된 전주사고 실록의 보존은 중차대한 일이 되었다. 전란 중에도 선조(宣祖)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항구적인 보관처로 이전과 달리 험한 산중이나 외딴 섬과 같은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았다. 그 결과 험한 산중의 사찰로 묘향산의 보현사가 구체적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고려시대의 외사고 운영이 참작되었고, 전란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읍치보다 산중의 험한 곳이 실록을 지키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자리하였다.

그런데 불교를 이단(異端)으로 배척하던 조선시대에 국가의 공식 기록물인 실록을 사찰의 승려에게 지키도록 하는 것은 명분에 부합되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사고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산속에 위치할 경우에는 방어 뿐 아니라 비용 절감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판단되었다. 그렇지만 읍치사고와 산중사고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읍치사고가 운영과 관리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중이나 섬으로 사고가 옮겨간 데에는 전란으로 인한 경협이 컸다.



04 광여도 봉화현 일대
05 광여도의 태백산사고 부분

조선은 3곳의 실록이 멸실된 임진왜란 초기부터 전주사고 실록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복본(複本)하려 했지만 전란의 급박성과 피해 복구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 실록을 복인(複印)하게 되는데, 전주사고 실록을 저본으로 하여 방본(傍本) 1질과 신인본(新印本) 3질 등 모두 5질을 마련하였다. 종전 후 극한 상황에서도 국사(國史)를 보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해낸 성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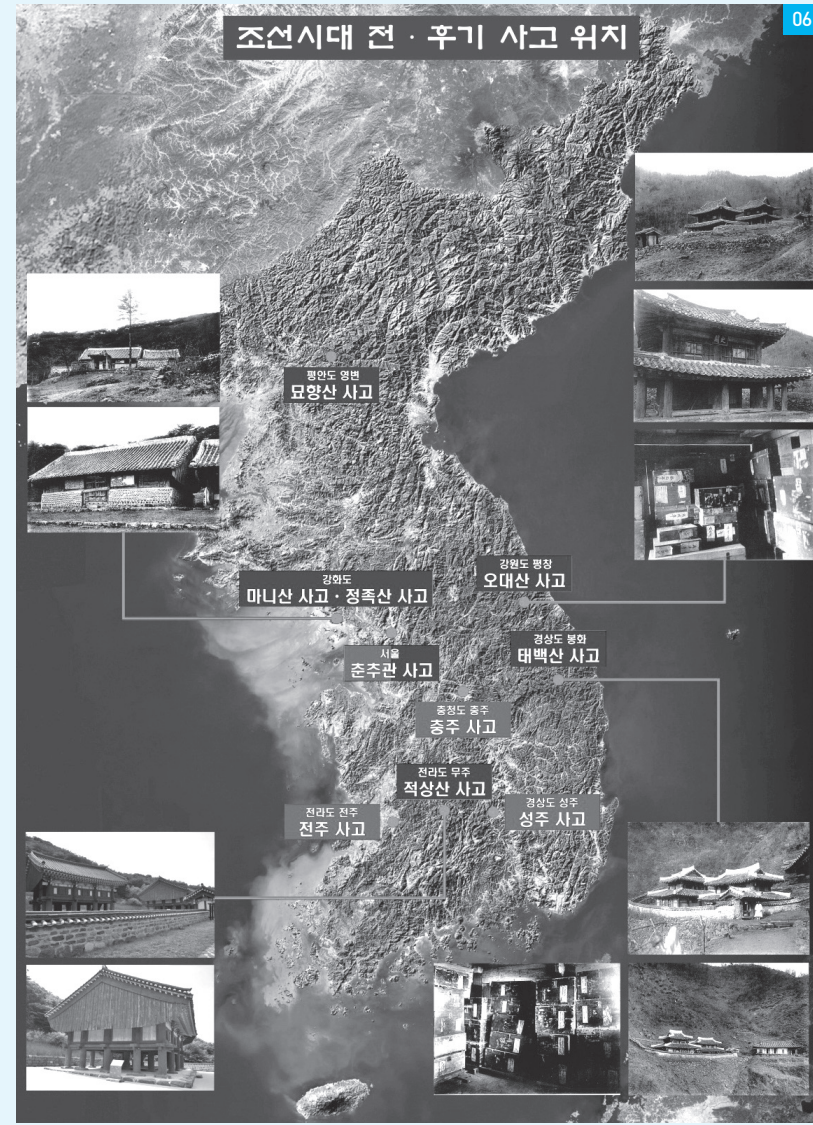
실록 복인 후 새로운 사고를 선택하여 분장하게 되는데, 이전과 달리 읍치가 아닌 산중과 섬이었다. 그 당시 실록을 보관하고 있던 강화도와 한 때 실록을 보관한 적이 있는 묘향산은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오대산과 태백산사고는 해당 지역 관찰사에게 적지를 물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해당 지역 관찰사가 직접 현장을 답사한 후 결정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설치된 외사고는 조선 전기의 읍치와는 달리 산중과 섬에 위치하였고, 수호와 관리는 관원이 아닌 승려에게 맡겨졌다. 이전과 다른 환경에 사고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경외사고수직절(曁京外史庫守直節目)」이 마련되었다.

조선 후기 사고 운영과 수호에 있어서 특징 중의 하나는 관원을 활용한 조선 전기와 달리 승려(僧侶)를 이용한 점이다. 「사고절목」에 따르면, 사고 수호의 임무를 승려에게 맡기되 이들의 각종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수호사찰을 두어 승려들의 거점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위전(位田)을 주어 자생의 방도로 삼게 하였다. 대신에 사고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참봉과 수직의 임무를 띠는 고지기(庫直)를 따로 두었다. 결과적으로 조선후기 사고 관리에는 사소한 사건들이 없지 않았지만, 다섯 곳에 보관해 온 실록 중 춘추관사고본을 제외한 네 곳의 실록을 보존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유지되었다. **IN**

● 필자소개

전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조선후기 적상산사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료조사위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선양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적상산사고의 설치와 운영」, 「조선시대 사고관리의 변화」, 「동학의 반외세 운동과 천주교」, 「동학농민혁명 이전 동학과 천주교의 상호인식」, 「동학의 교조선원운동기 척왜양(斥倭洋)운동」 등의 논문이 있다.



06 조선시대 전·후기 사고 위치
07 오대산사고
08 정족산사고
09 태백산사고